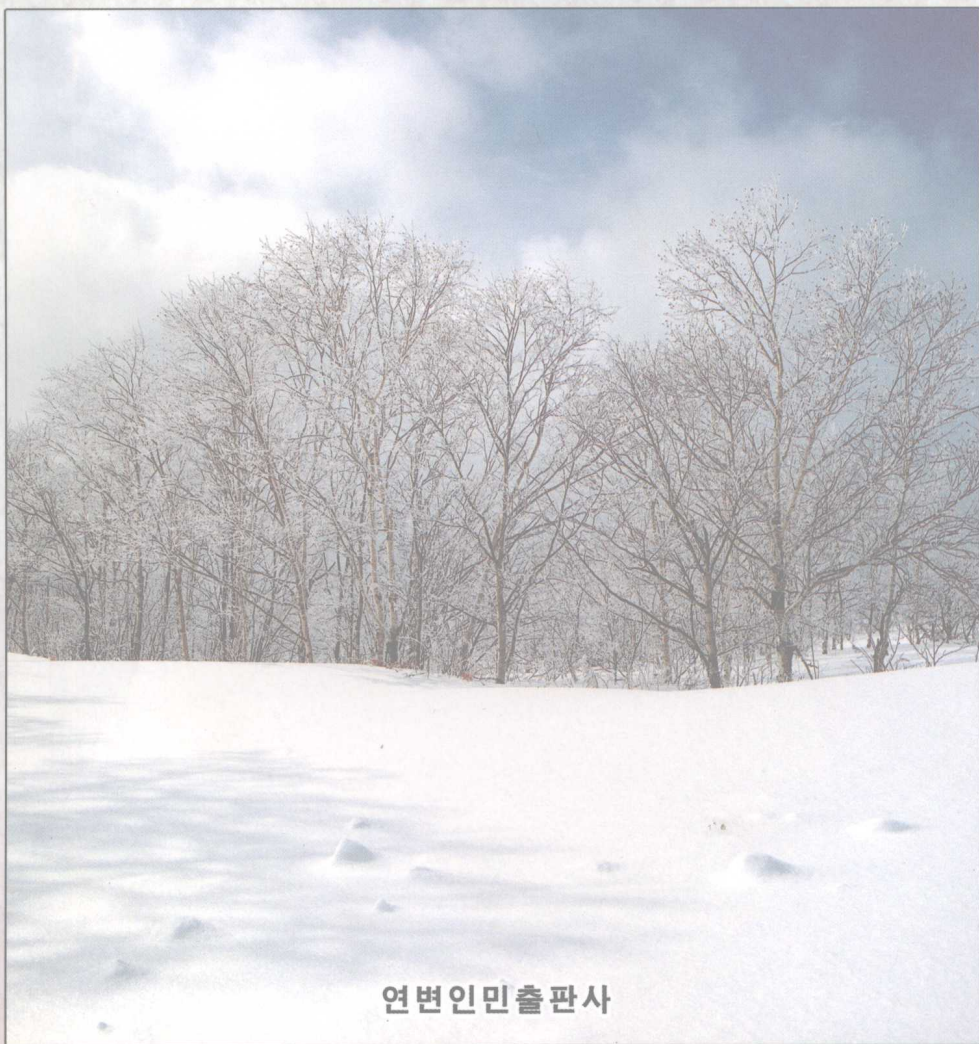


아동
문학

2008년 겨울호

..... 루게 제125호

Children's Liter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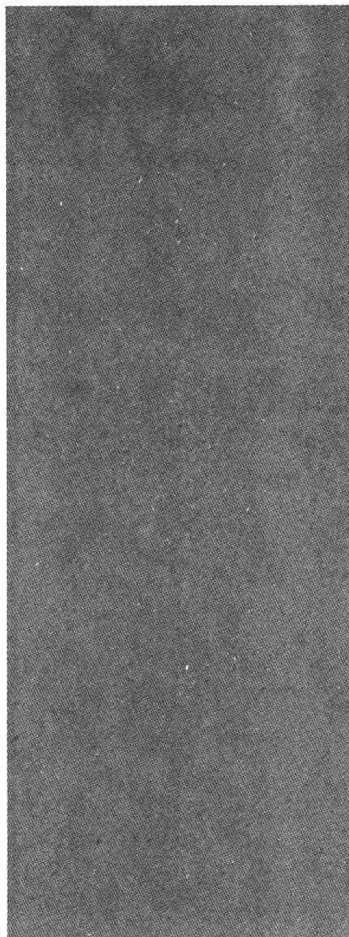


연변인민출판사

아동문학

중국조선족순수아동문학전문지

2008년 겨울호
(루게 제125호)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김현순
책임교정: 김홍화

편집위원회(ㄱ, ㄴ, ㄷ 순)

주 임: 김현순

위 원: 김득만, 김만석, 김장혁, 김혁, 김철호, 권중철,
리광일, 리영철, 전춘식, 최동일, 최문섭, 한석윤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儿童文学. 2008 冬季版: 朝鲜文/ 金贤舜主编.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8. 11
ISBN 978-7-5449-0163-5

I. 儿... II. 金... III. 儿童文学-作品综合集-中国-
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8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8) 第028573号

儿童文学(冬季版)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图们市日升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7.5 字数: 22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163-5 (民文)

版次: 2008年9月 第1版 2008年9月 第1次印刷

定价: 15.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아동문학

Children's Literature

2008년 겨울호 루게 125호



편집부전화

0433-2902125

● 편집부주소

中国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延边人民出版社

《儿童文学》编辑部

우편번호: 133000

E-mail: admh123@hanmail.net

차 례

소설동네

- 001/ 림종전에 온 편지.....황춘화
102/ 열일곱살때의 나팔바지.....서경빈

동화마을

- 012/ 가시 돌는 별.....주덕진
028/ 열여덟개 닭알.....탕광영
042/ 건망증환자(외 1편).....오미자
082/ 기기박사와 토토 계렬동화 · (2).....천 몽
156/ 여름나라와 겨울나라.....한문이
167/ 자전거네 바퀴형제.....주서장
208/ 푸른 락원.....신정국

동시나라

- 078/ 어린이시조묶음
123/ 엄마손만 잡으면(외 4수) 문삼석
127/ 아기염소가 웃는 까닭(외 4수).....오순택
131/ 산새 물새(외 4수).....김동진
135/ 산 · 1(외 3수).....정문준
139/ 연애편지(외 2수).....전춘식
142/ 구전동요 한묶음.....리룡득
147/ 해님의 낚시질(외 6수).....최화길
152/ 반짝구두(외 1수).....강성범
154/ 꿈에 본 학교(외 2수).....정경남

아동문학

Children's Literature

2008년 **겨울**호 루게 124호

주필: 김현순
편집: 리영철
교정: 김홍화
기술설계: 정려란

차 례

수필가

- 039/ 봄은 어디에서 올가요?.....권중철
075/ 대추나무.....박동하
107/ 닭알 두알.....리윤정
164/ 솔고개.....김응룡

우화동산

- 042/ 건망증환자(외 1편).....오미자
160/ 커진 일자.....김충국
182/ 부모의 은덕.....장춘화

기획초명

- 037/ 단평 · 흘러넘치는 정.....김보라
045/ 손룽호와 그의 작품세계
046/ 소설 · 시험대책.....손룽호
056/ 평론 · “유치불안”의 우려를 차단하기.....김성호
161/ 단평 · 죽은지식보다 산 지혜가 낫다.....김천사
063/ 인상담 · 그 친구와 사귀어 30년.....홍천룡
172/ 평론 · 생태문학에 대한 사고.....김만석
184/ 최문섭근작동시 한바구니
194/ 평론 · 너무너무 맛있는 동시.....김학송
199/ 황희숙동시 한바구니
205/ 단평 · 한 사물에 대한 시적인 새로운 해설.....최룡관
소설가 김혁선생의 폐지:
213/ 소설 ·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234/ 창작후기 · 동화, 그 작은듯 커다란 테마
취재글
111/ 래일을 열어가는 원에서.....김현순

· 소설 ·

림종전에 온 편지

황춘화

나는 마침내 실업을 당했다. 기실 사장은 그사이 여러번 나를 밀어낼수 있었지만 인내성 있게 참아왔다. 나는 사장의 너그러움에 내심 고마움을 느꼈다.

신문사의 한 기자로서 나는 사장에게 많은 시끄러움을 끼쳤다. 하지만 무엇때문인지 나는 그 원인을 알수 없었다.

사장은 줄곧 나를 보고 으뜸가는 기자라고 엄지손가락을 내들렸다. 하지만 나는 어쩐지 일찍 기자였다는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 사장은 나의 해석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동양이, 고카는 사람마다 주목하는 사람이기에 그를 수시로 취재해야 하오.”

기실 나는 고카가 누구인지 조금도 모른다. 나는 사장이 건네준 고카의 명함장을 본후 그의 회사를 찾아갔다.

나는 화려하게 잘 꾸려진 회사안에 들어섰다. 홀에 서있던 예쁘게 생긴 아씨가 나를 보더니 만면에 웃음을 날리며 다가왔다.

“아유, 리선생님, 오래간만이예요. 무슨 일로 찾아왔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을 굴려도 앞에 서있는 매력적인 아씨가 누구인지 알수 없었다. 하여 고개를 기웃거렸다.

“아썬 어떻게 나를 알죠?”

아씨는 갑자기 손으로 입을 가리우고 허리를 꼬며 까르르 웃고나서 웃음이 너울치는 눈길로 나를 보며 말했다.

“아니, 리선생님은 아주 유모아적이네요. 내가 왜 리선생을 모르겠어요. 얼굴기색이 아주 좋은걸 보니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된 모양이에요.”

나는 아씨의 말을 통 알아들을수 없었다. 하여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고경리를 만나러 왔는데요.”

“고경리한테 인사를 드리려구요?”

아씨는 여전히 웃는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는데요.”

나는 의아한 눈길로 아씨를 여겨보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아씨는 내가 계속 룡담하는줄 알았는지 여전히 웃음을 담은채 입을 열었다.

“고경리가 지금 계시지 않아요. 무슨 일인지 내가 전달해드리지요.”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수 없는 아씨와 계속 말을 주고받을수 없었다. 하여 두말없이 회사에서 나와 신문사로 되돌아갔다.

사장은 신문 첫페이지에 큼직한 자리를 남겨놓고 내가 돌아오기를 고대 기다리고있었다.

내가 고경리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자 사장은 못미더운지 휘둥그레진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고경리와 보통사이가 아닌데 왜 만나지 못했소? 당신이 찾는다면 달나라에 가있는다 해도 즉시 돌아올 고경리겠는데...”

“그런데 난 왜 고경리를 모릅니까? 나와 고경리는 도대체 어떤 사이입니까?”

내가 궁금한 어조로 물었다. 그러자 사장은 발칵 성을 내는 것이었다.

“당신이 머리가 돈 거 아니요?”

“머리가 돌기는요. 이틀전에 병원에 가 전면검사를 했는데 모든 것이 정상이던데요.”

나는 성을 내는 사장이 두려워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사장과 나 사이에 이러루한 일들이 늘 일어났다. 사장은 드디어 참을수 없는지 어제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참 유감스럽소. 당신이 왜 이렇게 참외밭으로 나가는지 통 모르겠소. 이젠 당신을 더 남겨둘수 없으니 재무실에 가서 결산하고 돌아가오. 하지만 아무때든 정신이 제대로 회복되면 다시 돌아오는것을 환영하오.”

이렇게 되어 나는 일자리를 떼웠다.

이튿날이다. 예전 같으면 출근하느라 들볶아댔겠지만 이젠 일자리가 없으니 줄리우는 것이 없이 집에 편안히 있을수 있었다. 나는 객실의 쏘파에 앉아 요즈음에 벌어진 일들을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어쩐지 이상야릇한 느낌만 들었다.

이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달려가 문을 열었다. 우체원이 편지 한통을 내밀었다. 우체원이 돌아서자 나는 문을 닫고 다시 쏘파에 가 앉았다.

(누가 나한테 편지를 쓴단 말인가?)

나는 부쩍 호기심이 동했다. 하여 봉투를 뜯고 속지를 꺼내어 펼쳐든후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다. 이상하게도 “리동양”이라고 나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나는 누가 나와 장난치는줄 알고 편지를 쏘파우에 홀 내던졌다.

(누가 나와 이런 장난을 할가? 도대체 무슨 내용을 썼을가?)

나는 이런 궁금증이 머리를 쳐들어 다시 편지를 집어 들고 처음부터 보기 시작했다. 편지전문은 이러했다.

사랑하는이, 나는 당신을 어떻게 불렀으면 좋을지 몰라서 이렇게 부릅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받아볼 때면 난 이 세상에서 이미 사라지게 됩니다. 난 내가 죽게 된다는것을 언녕부터 알고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겐 엄청난 심장병이 있거든요. 물론 이 모든것을 당신은 꼬물만치도 모르기에 난 처음부터 상세히 말하려 합니다.

난 일찍 신문사의 기자였습니다. 아주 출중한 기자였습니다. 사장은 나를 아주 믿고있었습니다. 하기에 번마다 제일 어렵고 중요한 취재임무를 나한테 맡겼습니다. 나는 이런 사장한테 한번도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습니니다. 나는 최대노력을 다해 맡은 임무를 원만히 완수했습니다. 그때 나는 앞날에 대해 신심으로 충만되어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5년간 더 분투하여 아름다운 해변가에 별장을 척 사놓고 자기가 쓰고싶은 글을 쓰면서 멋있게 살아가리라 마음먹었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것이 너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그날은 아주 청쾌한 날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자가용을 타

고 고카를 취재하러 떠났습니다. 고카는 우리 시에서 손꼽히는 부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여러번 그를 취재하였기에 그에 대한 정황을 잘 알고있었습니다. 그는 고신과학을 리용하여 인체의 각 기관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해냈던것입니다. 한 환자가 신장의식수술을 하자면 다른데서는 20만원을 줘야 신장을 살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만한 돈을 팔아도 알맞은 신장이 없는것이 문제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카네 회사에 가면 10만원을 주고 살수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모여드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따라서 장사도 점점 더 흥성해졌습니다.

한창 신나게 승용차를 몰던 나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나면서 심한 현훈증을 느꼈습니다. 나는 급히 길옆에 차를 멈춰세웠습니다. 이어 나는 핸들에 몸을 기대채 정신을 잃고말았습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보니 어느덧 병상에 누워있는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나를 보고 심장이 나빠질대로 나빠졌으니 더 살자면 심장을 바꾸어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며칠간의 치료를 거쳐 나는 몸이 좀 나아졌습니다. 나는 출원하자 바람으로 고카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그를 취재하려는것이 아니라 심장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카는 아주 통쾌했습니다. 그는 무료로 나에게 심장을 제공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너무도 뜻밖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러자 고카는 나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복잡하게 생각할게 없다고, 내가 선전을 잘해주었기에 더 쉽사리 성공할수 있었다면서 요만한 일도 못해주겠는가고 했습니다. 그제야 나는 웃으면서 그의 선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로부터 나와 고카 사이가 더욱 밀접해졌습니다.

고카는 회사의 제일 선진적인 시설로 나의 신체상황을 전면검사했습니다. 내가 의기밀에 눌자 술한 기계손들이 뻗치더니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조금후에 나는 지각을 잃

고말았습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보니 고카와 여러 사업일꾼들이 나의 곁에서 바빠 보내고있었습니다. 고카는 나를 보고 먼저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후 나는 켜하면 고카네 회사로 갔습니다. 그때마다 고카는 나를 보고 심장 하나를 만들자면 충분한 시간이 소요되기에 내심하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후 얼마 안되어 나는 또 고카를 찾아갔습니다. 하루빨리 심장을 바꾸고싶은 마음이 불붙듯했으니깐요. 헌데 맹랑하게도 고카가 불일이 있어서 나가고 없었습니다. 나는 복도에서 서성거리면서 고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나는 별생각없이 길게 뻗은 복도끝까지 갔다가 알릴듯말듯한 문 하나가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이 회사에 그렇게 많이 다녀보았지만 이곳에 칸이 있는줄은 몰랐습니다. 손가락으로 문을 두드려보았습니다. 쇠문이였습니다. 나는 호기심이 동해 문을 힘주어 밀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 들어선 나는 두눈이 뒤집힐 지경으로 놀랐습니다. 굵고 둥그런 유리통들이 여기저기 기둥처럼 가득 서있었는데 채 발육되지 않은 인체가 파란 물속에 잠겨져있었습니다. 실로 소름이 끼치는 일이였습니다. 나는 여기저기 돌아보다가 한 유리통앞에서 너무 놀라 하마트면 소리를 지를번했습니다. 거의 성숙돼가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 그속에 들어있는것이였습니다.

이때 갑자기 누군가 나의 어깨를 잡는것이였습니다. 깜짝 놀란 나는 몸을 흠칫 떨며 돌아섰습니다. 고카였습니다.

고카는 나를 보고 놀랄게 없다면서 유리통안의 사람이 바로 복제인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기관이식수술이 수요되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신체검사를 할 때 기실 환자의 DNA를 채집한후 그와 같은 사람을 복제해낸다고 했습니다. 복제인이 다



성숙되면 그 복제인의 생명은 곧 끝나고 필요한 기관만 꺼내
쓴다고 했습니다. 복제인의 기관으로 이식수술을 하면 안전하
고 성공률이 높으며 배척반응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생각만 해도 머리카락이 곤두섰습니다. 내앞의 유리
통안에 있는 살아숨쉬는 듯한 “나”를 해부하여 팔딱팔딱 뛰는 심
장을 꺼낸후 나에게 이식수술을 하다니... 너무 잔인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간담이 서늘해났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일수
없었습니다.

고카는 나를 보고 복제인의 체내에서 기관을 꺼내는것이기

에 두려울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고카를 보고 복제인이 생각할줄 아는가고 물었습니다. 고카는 잠깐 침묵을 지키다가 복제인은 생각할줄도 모르고 외계에 대해 아는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더는 고카의 말을 믿고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카가 아주 무서운 일을 하고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범을 어기고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흐르는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뜨거워난 나는 이곳을 떠나려고 뺨 돌아섰습니다. 고카는 이러한 나를 보고 낮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선생이 마음대로 하시오. 공안국에 신고해도 일없구요. 이 복제인을 그대로 내버려둬도 일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그 결과가 어떠하리라는건 기자선생이 더 잘 알것입니다. 기자선생은 얼마 안 가 심장병으로 죽게 될것입니다.”

죽는다는 말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가슴속에 꼭 들어찼던 굴뚝같은 노기가 잠간새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는 고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고카는 나의 벗이었습니다. 고카는 나를 살리기 위해 복제인을 만들어냈던것입니다. 나는 그를 배반할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려고 모지름을 썼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복제인- 바로 당신은 더 성숙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유리통의 파란 물속에 잠겨있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나에게 심장을 제공해주는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유리통에서 나오는 때가 바로 당신의 생명이 마감하는 시각이 되지요. 사람들은 당신의 가슴을 가르고 심장을 꺼낸후 육체를 돼지고기 배춧 각을 잘라버리게 될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바르르 떨렸습니다.

수술이 예약된 전날이었습니다. 나는 고카를 보고 당신을

한번 더 볼것을 요구했습니다. 고카는 나의 간절한 눈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었습니다.

나는 다시한번 알릴듯말듯한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당신이 들어있는 유리통앞으로 갔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눈을 꼭 감고있었습니다. 당신은 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듯싶었습니다. 지어 래일이 자기의 마감날이라는것도 모르고있는듯싶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똑똑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피부는 이미 주름이 잡히기 시작한 나의 피부와 달리 아주 매끌매끌했습니다. 당신의 두다리는 이미 휘기 시작한 나의 다리와 달리 곧고 미끈했습니다.

나의 눈길은 당신의 코에 가 멎었습니다. 당신의 코옆에 자그마한 사마귀가 있는것이 보였습니다. 나와 똑같은 위치에 난 똑같은 크기의 사마귀였습니다. 나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코옆에 난 사마귀를 손가락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나와 당신 사이엔 조금도 다른 점이 없다는 생각이 새삼스레 들었습니다. 우리는 생김새가 똑같은뿐만아니라 당신의 혈관에서 흐르는것도 역시 나의 피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부자관계? 아니면 형제관계? 다 아니지요.

나는 머리속이 삼검불처럼 복잡해졌습니다. 황황한 가운데서도 나의 머리속에는 굴뚝같이 치솟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인즉 난 절대 당신을 해칠수 없다는것이었습니다. 아니, 그 누구도 당신을 해치게 할수 없다는것이었습니다.

나는 유리통가까이에 다가서서 당신을 더 똑똑히 살펴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이번이 내가 당신을 보는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크기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당신이 입귀를 실룩거렸습니다. 마치 웃는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엇이라 말하는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카는 나를 보고 빨리 병원에 가서 수술받을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집에 가서 짐을 꾸려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신분증을 고카경리에게 넘겨주면서 보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회사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짐을 간단히 챙겨가지고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자가용에 오른 나는 병원으로 향한것이 아니라 시교로 향했습니다. 나는 이 도시에서 철저히 사라지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도시를 멀리 떠나 편벽한 바다가에 자리잡았습니다. 이어 나는 곧 고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고카를 보고 영원히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고카는 나를 보고 미쳤는가고, 인차 죽게 될것이라고 큰소리쳤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무섭지 않으니 나의 복제인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의 모든것을 대체하게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고카는 나를 보고 정신빠진 소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복제인의 두뇌는 백지와 같은 공백이기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로 하여 한바탕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나는 고카를 보고

“나의 마지막 부탁이니 이 요구만 들어주시오.” 하고 말하고는 대방이 뭐라 할 새도 없이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바다에 처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외계와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나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려 편지지우에 똑 떨어졌다. 나는 고개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제야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나에게 신분증을 돌려준

다면서 집에까지 승용차로 데려다준 사람이 고카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헌데 고카란 누구인가? 고카가 나의 벗이란 말인가?

고카가 누구든지간에 나는 그를 찾아가야 했다. 나는 비단 내 삶을 살뿐만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사는것이니깐 말이다.

그런데 고카를 만난후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무것도 모르는척 시치미를 뚝 떼고 그와 계속 벗으로 사귀어야 하는가? 아니면 고카의 죄악적행위를 폭로하고 그가 마땅한 징벌을 받게 해야 하는가? 이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였다...

명언

- ◎ 리상 없는 사람은 날개 없는 새와도 같다.
- ◎ 될성부른 나물은 떡잎부터 다르다.
- ◎ 눈은 두 개 밖에 없어도 우주를 담을수 있고 가슴은 작아도 천하를 품을수 있다.

· 동화 ·

가시 돋는 뽕

주덕진

2년전, 그러니깐 동구가 11살 나던 해인 재작년이었습니다. 한국에 로무송출로 나갔던 그의 외삼촌이 돌아오면서 하나 밖에 없는 외조카인 그한테 선물로 풋뽕 하나를 갖다주었던 것입니다.

“동구야, 이걸 뭐지?”

출국한지 5년, 동구가 보고싶다며 동구네 집에 들려 동구를 안아보던 외삼촌이 배낭을 끄르고 안에서 사발보다 좀더 크고 둥근 알락달락한 물건을 꺼내들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야, 풋뽕!”

첫눈에 풋뽕을 알아본 동구는 기쁨에 겨워 웨쳤습니다.

그도그럴것이 동구가 풋뽕을 동경해온지가 오래되니 말입니다.

시축구선수로 편적 있다는 아버지의 유전을 받아서인지 어